

구석구석 구수한 추억과 정이 넘쳐나요

봄이 가장 먼저 찾는 곳 장흥 토요일시장



매주 토요일 장흥에는 볼거리, 살거리, 먹을거리(위로부터)가 가득한 토요일시장을 찾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꽃등을 스쳐가는 바람이 아직은 매서운걸 보니 겨울, 2월이다. 한낱 햇볕이 제법 포근한 걸 보니 봄의 2월이 기도 하다. 먼발치에서 서성이고 있는 새 계절의 모습을 엿보기 위해 봄이 가장 먼저 찾는 곳,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 시장에 다녀왔다.

구수한 토요일시장 풍경을 보기 위해 남도의 끝자락 '정남진'(正南津) 장흥을 찾았다. 소박한 남도의 산이 마중하는 23번 국도를 따라 장흥으로 방향을 잡은 지 1시간 20분여 장흥역과 이웃하고 있는 심천공원이 모습을 드러낸다.

다시 탐진강 물줄기를 따라 길을 재촉했다. 강변도로를 달리다가 장흥교를 지나 예양교를 건너니 그곳에 바로 토요일시장이 있다. 재래식 시장의 현대식 재장비 바람을 타고 깔끔한 가게 상점이 들어선 시장은 매주 토요일 '할매시장'으로 변신한다.

할매들이 좌판을 벌이는 토요일시장에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익숙한 것들이 없다. 마트 진열장에 가지런히 놓인 깔끔한 채소도, 뜰에 익은 직원들의 친절함과 미소도 이곳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인기 짝 '할매들 장터' 명물로

짐작 뒷밭에서 바람과 햇살을 머금고 자란 못난 채소들. 물건을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 썩스러운 할매상인들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게 이곳 토요일시장의 멋이다.

흔하게 보는 시장 건물을 지나 장터로 나서니 토요일시장의 진짜 모습이 펼쳐진다. 아침 바람에 길을 나섰을 할매들이 시장 길 양편 가득 자리를 잡고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 보따리를 풀고 있고, 소쿠리에 또 보자기에 담고이고 온갖 채소들은 할매를 따라 길게 늘어선 손님을 기다린다. 흠뻑새 가득한 할매들의 뒷밭이 그대로 시장으로 옮겨져 와 있다.

때가 때인 만큼 열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겨울을 지낸 봄동 배추가 차지하는 자리가 가장 많다. 아삭아삭 입맛을 돋구어줄 겉절이 생각이 봄동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손길도 분주하다.

똑같이 곱슬곱슬 파마머리를 한 할매들은 똑같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는다. 짙어진 무거운 삶의 무게에 웃는게 익숙치 않았던 할매들이 무뎠던 얼굴로 검정 봉지에 상추를 담고, 봄동을 담는다.

하지만 봉지 가득 텃밭을 담은 할매들의 손끝에 고향의 따뜻함과 어머니의 푸근함이 똑똑 묻어 나온다.

휘휘 시장을 거닐다보니 할매들의 목에 걸려있는 무엇인가 눈길을 끈다. 자세히 들여다 보니 할매들의 이름표다. 봉동떡, 황산떡, 웅발리떡.. 자신의 이름 석자보다 더 익숙할 할매들의 이름이다. 할매들의 이름표는 토요일시장의 일원이라는 신분증이기도 하다.

175명의 할매들은 장흥군의 지원 속에 직접 재배한 채소 등을 팔면서 토요일시장의 명물로 잡아가고 있다. 이들을 대표하는 '반장할머니'는 출석을 관리하고, 장터 청소를 책임지고, 자체적으로 생산한 채소인지를 단속하기도 한다.

공연장은 한바탕 잔치로 들썩

'할매표' 아재, '할매표' 약초를 돌아보느라 바쁜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 건 역시 먹을거리다.

간장 양념을 얹은 탱탱한 묵, 노릇노릇한 호떡, 퐁퐁한 봉어빵. 멀리 옛장수의 신명나는 가위소리도 사람들의 발길을 끈다. 시장통에선 술판도 빠질 수 없다. 따끈한 국밥을 놓고 소주잔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한 잔 술에 잠시 일상을 벗어둔다.

시장 한쪽에 위치한 공연장에서는 한바탕 잔치가 벌어졌다. 무명 가수의 흥겨운 노래 소리에 맞춰 어깨춤을 추는 사람들로 들썩이는 공연장, 할매들의 얼굴에도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다.

주변 천관산·탐진강도 볼 만

사람들의 인기로 가득한 토요일시장에서는 산과 강이 어우러진 장흥의 자연도 만나볼 수 있다.

탐진강변에 위치한 토요일시장은 은빛 갈대로 유명한 장흥의 명산 천관산과도 마주하고 있다. 그래서 탐진강변에 잘 정비된 산책로를 따라 위풍당당한 천관산의 위용을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다.

장흥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탐진강은 금강천과 합류해 강진을 거쳐 남해로 흘러든다. 천관산은 수십 개의 봉우리가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호남 5대 명산 중 하나. 꼭대기 부분에 솟은 바위가 주위로 장식된 천자의 면류관 같다 하여 천관산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자연 속에서, 자연을 담고 있는 장흥 토요일시장. 현대와 과거, 사람과 자연이 한데 어우러진 생동하는 삶의 현장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구수한 고향의 향수를 담아 정터를 지키는 할머니 상인들은 장흥 토요일시장의 명물이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져도 좋 보청기였을 겁니다.

국제보청기 www.kib.com

본점: 광주 남동로 1062-227-9940
총장점: 금남로 1062-227-9970

수많은 시범! 그러나 단 한사람!

대한민국 NO.1 재혼전문회사

행복출발 (주) 행복출발

052-527-3388

남성 헤어 기능장비 **大山프리모남녀기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프리모**

가발

초슬림!!

프리모